

3. 백홍룡씨 여권사본

사
VISAS

DEPARTED
1994 SEP 1
KIMPO 013

Indrejst den
U 5 SEP 1994
Ringsbillet
A-Roadby nummer 1184
DANMARK

* Győr-Vámosszabadi *
3 0 0 > 94 09 23
R O H
0610 * MK * 113 *

* SZOB *
5 0 0 > 94 10 11
R O H
3383 * MK * 206 *

2588 * MK * 176 *
0 3 4 > 94 10 08
R O H
* Biharkeres... *

005508577

개
AMENDMENTS

Faint, illegible text and markings, possibly representing a signature or official stamp.

6

258819

사증
VISAS

ROMANIA

0722747

27.11.1994

SCPIA BINOX

ROMANIA

LE CALATORIE (E)

LE VOIAGES

20

NUMERO DU PASSEPORT 588458

27.09.1994

AMBASADA

BUDAPESTA

08 09 94 C

Taxa incasată 36 ₸

100550857



Taxa incasată 36 ₸

100550857

사증
VISAS

**ČESKÉ VÍZUM
CZECH VISA**

PROJEZDNÍ MAVRATNÉ
TRANSPORT RETURN

JEDSMĚRNÉ
ONE-WAY
ODJAZDNÉ
TWO-WAY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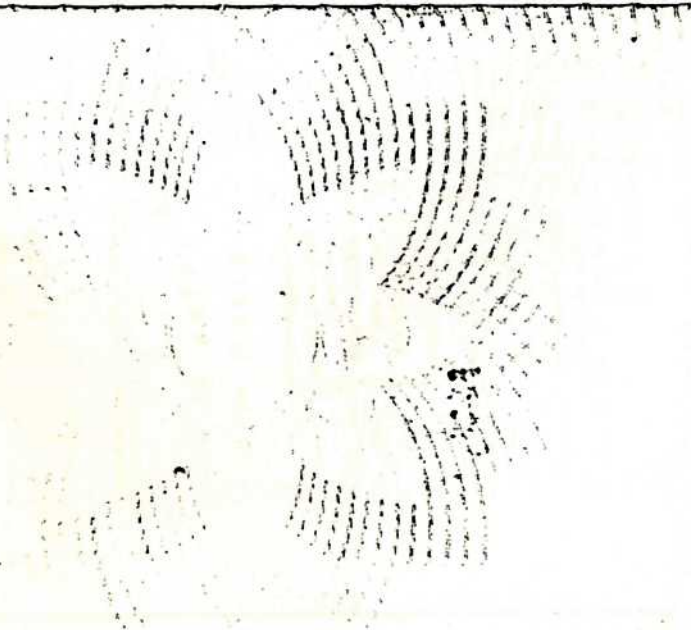
1 month at
per centre of
for return to
for return per
for return per
for return per
for return per

POŽITKOVÁ
USEFULNESS
OF THE DOCUMENT

10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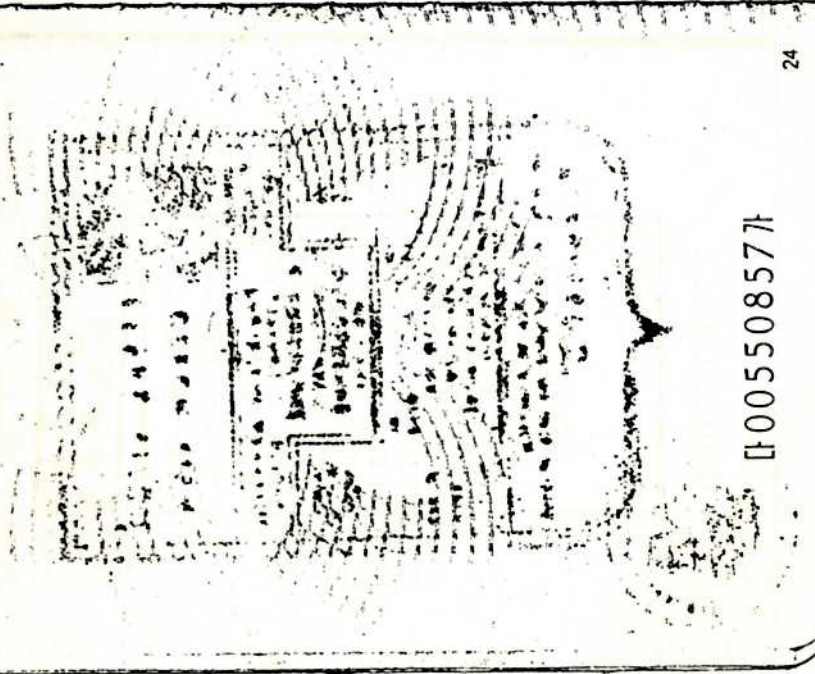
사증
VISAS



22

00550857

사 20
VISAS



[100550857]

사 20
VISAS

SLOVENSKE VISA

SLOVAK VISA

VSTUPNE PREJAZDNE MAVBARNE
ENTRY TRANSIT RETURN

JEDNOSMERNE
ONE-WAY

OBIDVUSMERNE
TWO-WAY

2

no days for
k 11 ceasem per
for...
-accompanying persons

POUŽITIE-VIZA DO 8 MESIACOV
USE VISAS & WORKS PERMITTED

BRNO

SR

34

사증
VISAS

귀국 후 5일 이내에
동사무소에 신고

출국 확인

1. 귀국 후 5일 이내에 동사무소에 신고
 2. 출국 확인서 1부
 3. 여권 1부

※ 출국 확인서는 귀국 후 귀국신고서와 함께
 관공서에서 발급 받는다.
 ※ 8초의 유류료는 별도 지불.
 위와 같이 출국료를 지불하였음을
 확인함

1994. 9. 01


영부청 김포출국국신과서장

[005508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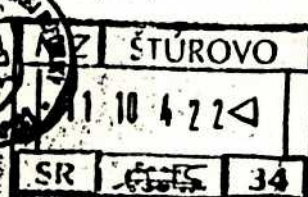
사증
VISAS



APPLICATION FOR CZECH VISA

SURNAME BAK		GIVEN NAMES Heung Yong			
MAIDEN OR OTHER NAMES USED NOW OR IN THE PAST		PASSPORT NO. [REDACTED]	DAY, MONTH, YEAR OF BIRTH 18.09.1966		<input checked="" type="checkbox"/> MALE <input type="checkbox"/> FEMALE
NATIONALITY Korea	COUNTRY OF BIRTH Korea	PLACE OF BIRTH Seoul			
COUNTRY OF RESIDENCE Korea	PLACE OF RESIDENCE Seoul	STREET OF RESIDENCE Samsung Dong			
NAME OF EMPLOYER K.com.	ADDRESS OF EMPLOYER PLACE Seoul	STREET Pong Chon Dong	PRESENT JOB Camera Man		
ADDRESS IN CZECH REPUBLIC PLACE PRRHH	STREET	VISITED PERSON, HOTEL, INSTITUTION Junior Hotel		LENGTH OF STAY 9	
VEHICLE REGISTRATION NO.	INT. CODE	*CAR, TRUCK, MOTO	FACTORY MAKE OF VEHICLE	COLOUR OF VEHICLE	
GIVEN NAMES AND DATE OF BIRTH OF ACCOMPANYING CHILDREN				SIGNATURE Bak Heung	
A 825765	REASON FOR TRAVELLING * VISIT, SPORT, BUSINESS, TRANSIT, SPA TREATMENT, OTHER		<input checked="" type="checkbox"/> TOURISM, STUDY		
BORDER CONTROL SEAL					

2
ŽIADOSŤ O VÍZUM SLOVENSKEJ REPUBLIKY

Priezvisko BAK		Meno Heung-Yong		Deň, mesiac, rok narodenia 18.09.1966	
Rodné meno BAK	Státna príslušnosť Korea	Stát narodenia Korea	Miesto narodenia Seoul	Stát pobytu Seoul	
Adresa v Slov. rep. - miesto TRANZIT		Meno navštevovanej osoby - inštitúcie - hotela			
Účel cesty do SR: * turistika, návšteva služobnc, tranzit (3)		dĺžka pobytu 1	Deti do 15 rokov	Číslo a strán pasu [REDACTED]	
ŠPZ mot. vozidla -	Medzipr. poznáv. značka	* os. voz., autobus, nákl. vozidlo, motocykel	Výrobná značka vozidla	Podpis Bak Yong	
<p>* nevyplnené kolónky škrtnite</p> <p>The photograph must show true likeness. A group photo or a section thereof cannot be used. No photos are required of children under 15 entered in passport of their parents.</p>					
Pečiatka pasovej kontroly - ODPÍCHOD				Pečiatka pasovej kontroly - PRÍCHOD	

No. 2212623

國際旅客空港利用券 領收證

RECEIPT FOR P.S.C

金額：₩8,000



4. 독일방문 백홍룡씨 양심선언 조사 보고서

백흥룡(배인오)씨 양심선언 조사 보고서

1. 김삼석, 김은주 남매 조작간첩 사건의 개요

가.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체포, 구금과 성추행 등 일련의 가혹행위

(1) 반핵평화운동연합 정책실 연구원, 태평양 전쟁희생자 유족회 사무장, 범민족대회추진본부 일본문제 대책위원회 간사를 역임한 김삼석씨는 1993.9.8. 오후 1시경 집에서 일본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입저지에 관한 원고를 집필 중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 10여명에 의해 구타당하면서 연행되었다.

안기부 수사관들은 구속영장은 물론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김삼석씨를 연행하며 김삼석씨가 평소 수집하여둔 책자와 관련 자료는 물론 신혼사진 등 사생활에 관한 물건을 라면박스 10여개에 넣어 압수하였다.

안기부 수사관들은 남산 안기부에서 김삼석씨를 체육복으로 갈아입히고 심하게 구타하면서 "북한에 언제 갔다 왔느냐", "일본에서 북한의 누구와 만났느냐", "국내 연계조직을 데라"고 추궁하였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안기부 2차장(수사관들이 차관급이라고 함)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김삼석씨에게 "영장발부시간 때문에 잠을 재울 수 없다, 사진촬영을 해야만 한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안기부 수사관중 1명(160번 명찰을 달고 있었음)은 1993.9.15.경 화장실에서 김삼석씨의 성기를 만지며 "얼마나 큰가 보자, 다마 넣었나?, 어 다마 넣지 않았네"라는 말로 희롱하고는 손을 더럽혔다며 비누로 손을 닦기도 하였다.

그외에도 위 수사관은 물론 다른 수사관들도 김삼석씨의 부모님, 부인, 반핵평화운동연합의 조 아무개씨 등을 거론하며 수사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성적 모욕과 희롱을 하였다. 그리고 수사관들이 원하는데로 진술하지 않을 경우 당시 임신 8개월인 부인도 구속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동구

에서 1년 정도 공부하고 우리 회사(안기부)에 취직하라"고 회유하기도 하였다.

김삼석씨는 안기부 수사관들이 약 1년에 걸쳐 미행하고 일일이 도청(일상적인 전화통화는 물론 안방에서 부인과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도청하여 녹음하여 두었음)하고 사진촬영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김삼석씨는 위와 같은 잠안재우기, 구타, 협박, 회유, 성적 모욕 등을 당하며 결국 굴복하여 수사관들의 요구대로 일본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나고 왔다고 허위자백을 하였다. 또한 일본 가족고포회 회장인 이좌영씨로부터 결혼축의금으로 받은 돈도 북한공작원으로부터 받았다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무인을 강요하여 오른 손 엄지부분을 물어뜯고 거부하였으나 강제로 손을 잡아 날인토록 하였다.

김삼석씨는 위와 같은 사실을 폭로할 목적으로 자해를 결심하고 1993.9.20. 변호인 접견시 갑자기 일어나 벽에 강하게 머리를 부딪혀 실신하였고 이로 인하여 목과 엉덩이 뼈를 다쳤다.

(2) 김은주씨는 1993.9.8. 백홍룡(배인오)씨의 부탁으로 일본에서 왔다는 사람을 만나 건네주는 물건을 받고 100미터 정도 걸어가다가 안기부 수사관에 의하여 구속영장도 없이 강제로 연행되었다.

안기부 수사관들은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실에 감금한채 잠을 재우지 않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거나 뺨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사관들은 변호인 접견을 끝낸 김은주씨에게 잠도 재우지 않고 변호사와 한 이야기를 모두 진술하라고 강요하였다.

그리고 수사관들은 김은주씨가 허위자백을 하지 않자 "이거 안되겠구만, 다른 방으로 데려가야지, 옷이라도 벗겨야지 안되겠네,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아 볼래"라는 등 협박하였고 일본에서 일본어 공부를 하며 기거하였던 권용부씨를 거명하며 "너, 권용부와 그렇고 그런 사이지, 잠을 같이 자지 않았냐, 너 처녀냐"라는 말을 하며 희롱하였다.

(3) 그후 김삼석씨의 부인 윤미향씨는 김삼석씨 남매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 전원을 가혹행위

와 성추행, 모욕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 고발하였으나 윤미향씨와 김삼석씨만 조사한 채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나. 안기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

안기부는 1993. 9. 24. 김삼석씨 남매를 검찰에 송치하며 “재일북한대남공작조직 연계간첩 김삼석, 김은주 보도자료”를 언론기관에 배포하여 각 텔레비전 9시 뉴스, 일간지 등에 대대적으로 보도토록 하였다.

다. 조작의혹 제기

김삼석씨 남매가 구속되자 인권운동 사랑방과 천주교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간첩조작의혹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당시 제기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배인오(백홍룡)씨는 진보적 영화운동단체인 남누리영상의 대표로서 1992. 경부터 김삼석씨 남매에게 접근하였다. 배인오씨는 1992. 가을 경 일본인을 시켜 김삼석씨에게 “어머니”(전태일 열사와 어머니 이소선 여사의 생활을 영화화 한 작품) 비디오테이프를 전달하고 이를 배인오씨에게 전해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김삼석씨의 소개로 김은주씨에게 일본어 번역을 의뢰하며 접근하였고 자진하여 김삼석씨 결혼식 비디오 촬영을 하여 주었다.

(2) 배인오씨는 김은주씨에게 전대협 간부들을 소개하여 주었다.

(3) 배인오씨는 김은주씨가 일본에 갈 때 누구에게든 물건을 전해달라거나 전대협 간부들에게 물건을 전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4) 무엇보다도 93년 7월말, 배인오씨가 김은주씨에게 연락하여 8월 중 “일본에서 손님이 올 것인데 좀 만나서 통역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러나 8월에는 연락이 없었다. 그러던 중 9월 6일 배인오씨가 다시 전화하여 “9월 8일 정도에 전에 부탁한 일본손님이 올 것이다. 부탁한다. 김은주씨의 이모가게 전화번호를 줬기 때문에 그곳으로 전화가 올 것이다.” 라고 했고, 김은

주씨가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이름을 대기는 어렵고, '강이 보낸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했다.

9월 8일, 이모가게에 오니까 이미 전화왔었다는 메모가 있었고, 11시 정도에 다시 전화가 왔는데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김은주씨가 나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배인오씨에게 연락해 보겠다. 몇 분 후에 다시 통화하자."고 하여 전화를 끊었다. 배인오씨 사무실에 연락을 하고, 뽀뽀를 쳤지만 어떤 연락도 할 수 없었고, 응답도 오지 않았다. 다시 그사람에게서 전화가 왔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통역을 해주기로 했던 것이고, 배인오씨가 없으니까 자기라도 나가 봐야 겠다고 생각하여 나가겠다고 하였다.

그 사람이 자신의 차림새에 대해 한국말로 얼마나 설명을 잘했는지 고속터미널에 나가자마자 금방 '저사람이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한다.

의자에 앉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은 물건부터 줘서 이것을 배인오씨한테 전해주라는 말인가 보다 싶어 그것을 받아 다시 이모가게로 돌아오려고 100m쯤 왔는데, 그곳에서 미행하고 있던 안기부 수사관 7-8명에게 잡혔다.

(5) 김은주씨는 안기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기 시작할때부터 배인오씨에 대해 이야기 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배인오씨와 관련된 영상단체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고, 계속해서 한총련과의 관계에 대해 추궁했으며, "잡힐 때 갖고 있었던 '세기와 더불어'와 '김일성선집'을 오빠에게 전달해 주려고 했던 게 아니냐?"며 추궁했다. 그리고 예전에 배인오씨가 김은주씨에게 부탁했던 일들(분명히 배인오씨와 김은주씨만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안기부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

(6) 한편, 두사람이 연행되던 9월 8일은 물론 9일, 10일도 배인오씨는 자기 사무실에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그 사이에 김은주씨는 계속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배인오씨의 연락을 받고 '일본에서 왔다'는 사람을 만난 것이니, 배인오씨를 먼저 수사하라"고 주장했으나 묵살되었다.

배인오씨는 사건이 난지 만 이틀후인 9월 10일 오후에야 “검사로 있는 삼촌에게 들었는데, 김은주씨가 안기부에 잡혀 나를 배후인물로 붙여서 나도 위험하니 피신해야겠다”면서 사무실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피신했고 9월 11일 오전에 “시경에서 왔다”면서 7명의 수사관들이 남누리 영상 사무실을 수색했다.

(7) 9월 13일 오전 3시와 9월 14일 오전 6시에 배인오씨는 남누리 영상 사무실에 다시 나타나서, 박상희씨를 만났다. 당시는 김삼석 김은주씨에 대한 안기부의 구속수사 초기였고, 배인오씨는 사건의 정황상 “간첩” 김은주의 상부선이었는데, 그는 두번이나 자기 사무실에 나타났고 그때마다 잡히지 않았다.

(8)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재야단체와 가족들이 배인오씨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자, 배인오씨는 어떻게 알았는지 윤미향씨(김삼석씨의 처)에게 “적들의 분열공작에 이용당하지 말라. 윤미향씨가 편지를 받아보는 그 시간에 나는 남한땅에 없을 것이다”는 내용의 팩스를 보내왔다.

(9) 원래 기자간담회가 (93년 10월 27일)로 예정되어 있었고, 이 사실은 기자간담회를 준비한 사람들의 전화연락과정에서만 몇사람들만 알고 있었던 것인데, 배인오씨는 10월 26일에 그동안 대책위원회에 배인오씨의 9월 8일 행적을 자세하게 알려준 박상희씨(27살, 남누리영상의 제작부장)에게 전화를 해서, “쓸데없는 짓 하려고 하지마라”고 했다. 박상희씨의 강력한 요구로 10월 26일 오후 6시에 연세대학교 학생회관에서 배인오씨와 만나기로 했으나, 그는 약속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삐삐 호출을 통해 계속 박상희씨에게 “학교안에는 못 들어 가겠으니, 독수리 다방으로 와라.”고 계속 요구하다가 결국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10) 안기부 수사관들은 “이미 1년전부터 김삼석 김은주씨를 주시하면서 추적해왔다.”고 수사과정에서 말했고, 특히 김은주씨는 며칠간 미행하다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고 가족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내용도 모르고 일떨결에 김일성 저작물을 받은 김은주씨는 현장에서 100미터도 못가서 체포되었는데, 그 물건을 전해준 ‘일본에서 왔다’는 사람은 어떻게 놓쳤습니까? 안기부는 9월 2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일본에서 왔다는 사람’이 김은주씨의 상부선이라고 했다. 전해준 ‘세기와 더불어’, ‘김일성 선집’ 등은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간첩

들이 이 책을 이렇게 위협하고 어려운 방법으로 김은주씨에게 전했고, 김은주씨와 '일본 상부선'의 중간 연락책인 배인오씨는 입건조차 하지 않았는가?

(11) 김남매 간첩조작사건 대책위원회는 안기부가 프락치를 활용하여 천인공노할 함정수사를 자행했다는 심증을 굳힐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위와 같은 의문점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다. 재판과정

그 후 재판과정에서 김남매는 백홍룡(배인오)의 프락치 활동과 안기부의 공작수사를 폭로하고 증인으로 배인오씨의 여자친구 박상희씨를 내세워 입증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1994. 10. 25.경 이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유죄)이 확정되었다.

2. 민변의 이기욱·이덕우변호사가 베를린에서 양심선언을 한 백홍룡(배인오)씨를 만나러간 경위

가. 김남매사건 변호인 이기욱변호사가 김삼석씨 부인 윤미향씨와 김은주씨로부터 백홍룡(배인오)씨의 양심선언 보도자료를 94. 10. 29. 오후 4시경 이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보았으며, 이 보도자료는 백홍룡(배인오)씨가 독일 베를린에서 녹색당주최 하에 기자회견을 할 자료인데 한총련이 받아서 복사해 준 것이었다.

나. 94. 10. 3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에서는 위 양심선언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알려 주었다.

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94. 10. 31. 긴급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양심선언 보도자료를 살펴본후, 이기욱·이덕우변호사를 베를린으로 파견하여 백홍룡(배인오)씨의 양심선언 내용의 신빙성을 증점적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하여 94. 11. 2. 부터 94. 11. 7.까지 두 변호사가 베를린으로 가서 백홍룡씨와 녹색당관계자,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관계자, 성용승, 박성희씨등을 만나

고, 백홍룡(배인오)씨가 93. 10. 하순 촬영한 김남매사건 조작 실무자 안기부 김성훈 과장과 윤동한씨의 얼굴이 나오는 비디오 테이프와 김남매사건 이후 93. 11. 초순부터 약 4개월간 거주한 파주의 광탄양어장(낙시터)으로 가는 동안의 김성훈과장·윤동한씨·백홍룡씨·윤전기사의 대화내용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를 입수하고, 백홍룡씨와 인터뷰하면서 그 내용을 비디오로 촬영하였으며, 제반 내용에 대하여 진술서 2통을 받아 귀국했다.

3. 백홍룡(배인오)씨가 안기부 프락치가 된 경위

백홍룡씨 본인이 제작한 영화 "이름없는 영웅들" 상영문제로 93년 5월경 미국방문 후 귀국하자 안기부 직원들에게 연행되어 조사받았다. 미주에서의 활동등에 대하여 조사받으며 백홍룡씨와 미주지역 범청학련과의 연계 등에 대하여 추궁받자 공포심을 느꼈다. 또한 부산 안가에서 3일간 수사관 2명이 교대로 철야조사를 하며 잠을 재우지 않고 폭언을 하는 등으로 실신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는지 안기부에서 같이 일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하고 출세하도록 도와주겠다고 회유하였는데 회유가 제대로 되지 않자 큰형이 도피하여 살고 있는 집에서 나오는 장면등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며 수배 증인데 언제라도 잡을 수 있으나 협력한다면 불문에 붙이겠다고 협박하여 고민하다 결국 굴복하여 협력키로 하였다. (양심선언 보도 자료 3, 4쪽 참조)

4. 백홍룡(배인오)씨가 안기부프락치 활동한 내용

가. 2일 간격으로 안기부 직원들에게 전화하여 운동권의 동향, 개인적으로 접촉한 운동권 인사들의 사생활등을 보고하였으며, 안기부 직원들의 지시에 의하여 일본을 방문하여 조총련(조청) 및 한통련 등의 간부를 접촉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했다.

나. 92년 7월 말경 안기부의 과장 김성훈씨의 지시대로 일본에 입국하여 조청에 연락해 조청 조직원인 조선오(조청 정치부장)씨와 김성철(조청 정치부차장)씨 그리고 김영철씨를 만나서 15일 동안 일본에 체류하며 조사를 했다.

그 결과를 서울로 와서 안기부 과장에게 '하회장과의 관계는 연대하고 있지만 국내하고는 연대된 조직이나 개인이 없는 것 같다'고 보고하자 자기네 정보에 의하면 한총련 간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다. 과장이 '국내 사민청과 일본 조청단체가 연결할 수 있게끔 내가 직접 가서 해봐'라는 지시를 받고 92년 10월경에 도일하였다. 조청조직원(김성철)을 만나 '국내에도 조청같은 청년단체가 있는데 함께 연대사업을 하자'라고 제안하자 김성철씨는 '현재로서는 조청은 남한단체와 연대하는 게 어렵다. 나중에 고려해보자'라고 거절당하였다. 귀국하여 안기부 요원 3인에게 또 다시 이틀동안 조사를 받았다. 조사과정에서 과장은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사민청)과 조청이 연결만 된다면 너는 윗분들한테 큰 칭찬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라. 93년 1월 중순경 과장으로부터 또 지시가 내려왔다. 지시내용은 지난번 도일 때 백홍통씨가 조사한 내용을 다시 재확인하는 작업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활동해 보라는 것과 천주교 노동사목회 사무장 정인숙씨가 일본에서 만난사람들을 조사하라는 것, 국내 '전태일기념사업회'와 일본의 '전태일 기념사업회'와의 관계를 자세히 조사해오라는 것이었다. 다시 일본에 간 백홍통씨는 전태일 열사의 영화제작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오사카에서 한총련 오사카 지부장을, 동경에서 한총련의 신귀성씨를 접촉하였다.

귀국하여 일본에서 접촉한 사람들과 정인숙씨가 일본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보고하였으며, 조청과 관련해서는 역시 국내청년조직이나 한총련과 연결된 선이 없다라고 과장에게 보고하였다. 백홍통씨가 안기부직원들과 합숙하며 2일 동안 보고문을 작성한 곳은 마포구 불교방송국을 바라보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오피스텔 303호 비밀안가이다.

마. 그 후 백홍통씨는 안기부과장으로 부터 암호명과 고유번호를 지정받았는데 암호명은 '진달래', 고유번호 '7353'이었으며 고유번호를 호명할 경우 '53'이라 불렀다.

바. 93년 5월 초에 김성훈과장으로 부터 또 다른 지시가 내려졌다. '한총련과 조총련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이 확신할 순 있지만 정확한 증거가 없으니 그걸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영화운동을 하니 어떻게 해서든 조총련계 영화단체를 찾아가 북한영화를 입수하여 그 영화를 한총

련에서 보급하겠다고 말하고 국내로 들어오라'는 지시였다. 그래서 백홍룡씨가 도입하여 조총련계 영화사업가를 만나 북한영화를 입수하고 본인이 2편을 가져오고 4편은 인편으로 부쳐달라고 말한 후 귀국했다. 역시 안기부(비밀 안가)에서 이를동안 조사받으며 인편으로도 영화 4편이 오기로 되어 있다고 말하자 과장이 말하기를 '김은주를 통해서 그 영화를 건네받게 만들어라'라고 지시했다. 또한 '영화가 도착하면 김삼석한테도 북한영화를 소지하게끔 하라'고 말했다. 일본 조총련계 영화사(씨네까롱-서편제 수입업체)에서 일본사람을 통해 보내준 이북영화를 김은주씨와 함께 가서 건네 받은 후 안기부의 지시대로 김삼석씨한테도 북한영화를 주었다.

얼마후 93년 7월 안기부의 김과장으로 부터 또다른 지시가 내려왔다. '김정일 영화예술론'을 한총련 간부에게 전달하여 보급하게 하라는 지시내용이었다. 그 지시대로 한총련 문화부 사람을 만나 '김정일영화 예술론'을 건네주고 보고하자 과장은 '김은주씨가 몇일 후에 일본으로 들어갈 것 같으니 내가 김은주를 통해서 일본에 심부름을 시켜라'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백홍룡씨가 김은주씨에게 한총련 출범식 비디오테이프 6개를 주어 조총련계 영화사업가(대표:이봉우, 영화 포스터 디자인 담당자)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은주씨가 일본에 가서 한총련관계자에게 이 테이프를 전달해 준 몇일 후, 안기부 김과장은 백홍룡씨에게 '지금 너와 내가 곤란한 처지에 빠져있다. 하루속히 사건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 이번에 대상은 김은주와 김삼석이 가능하다. 그러니 내가 잘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사. 이후 7월말경 또 다시 안기부 김과장이 지시를 했다. '이번에 일본에 가면 조총련계 영화사업가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북과 관련된 책들을 보내달라고 말하고 이 책을 전달할 사람을 김은주하고 연결시켜라'하는 내용이었다. 이후 백홍룡씨가 일본에 가서 과장의 지시대로 조총련계 사업가에게 책을 보내달라고 부탁한후 김은주씨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김은주씨에게 책을 전달해 주라고 부탁했다.

10일동안 일본에 있다가 귀국하여 일본에서의 공작내용을 과장한테 잘 되었다고 설명하자 그가 수고했다며 '이번 일만 잘 성공시키면 윗분들이 너에게 장가갈 밀천으로 집 한 채의 포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며 김일성 10대강령 등 북한 관련 책자를 백홍룡씨에게 주며 김은주를 통해서 한총련 간부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가능한 한 김은주와 한총련 제정국을 연결시키라는 지시도 있었다. 안기부 과장의 지시대로 김은주씨를 통해서 한총련 간부에게 책을 전

달하였으며 김은주씨에게 한총련 재정국 담당자를 소개시켜 주었다.

그후 과장으로부터 또 다른 지시가 있었다. 지시내용은 '이번(93년) 범민족대회때 조총련계 영화사업가에게 받은 북한 영화를 한총련과 함께 상영하는 기회를 가져봐라. 가능하면 한총련이 북한영화를 상영하는 주체로 만들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백홍룡씨는 한총련 문화부 담당자를 찾아가서 북한영화를 주었고 범민족대회 추진본부도 가서 범민족대회가 개최되는데 북한영화를 상영했으면 좋겠다고 제안도 했다. 그래서 김과장의 지시대로 범민족대회 때 북한영화를 상영하게 되었다.

아. 9월 8일 안기부 김과장이 아침에 백홍룡씨를 불러내어 김은주씨가 근무하는 강남터미널 건너편 반포상가 지하다방에서 만났다. 김과장이 말하기를 일본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이 책을 갖고 오는데 조금 있으면 김은주가 나갈 것이다. 김은주가 너한테 삐삐를 치면 연락하지도 말고 김은주 혼자 나가게 내버려두라는 내용이었다. 오후 1시 쯤되자 안기부 요원이 다방으로 들어와 일이 잘 되었다고 과장한테 말하자 과장은 백홍룡씨에게 남누리영상사무실로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했다.

다음날 아침 김성훈 과장으로부터 연락이 와 남산 안기부 밑에 크리스탈 다방(안기부 요원들의 비밀다방, 안기부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과장을 만났다. 과장은 '김은주를 어제 현장에서 체포했다. 그런데 김은주가 모두 내가 시켰다고 말하니까 잠시 직원과 함께 피신해 있어라' 라고 지시했다. 그때부터 과장지시에 따라 안기부 직원과 함께 대구와 경북 성주 등지로 피신하였다.

자. 그 후 안기부사무실에서 백홍룡씨는 안기부 과장과 윤동한의 요구로 작성되어 있는 각서에 서명을 하였으며 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과 국가안전기획부와의 관계 및 안기부와 관계된 정보를 발설하거나 폭로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이다.'

5. 백홍룡(배인오)씨가 파주근처 광탄양어장에 약 4개월간 피신한 경위와 안기부 김성훈 과장과 윤동한씨의 얼굴이 찍힌 비디오를 촬영한 경위

가. 93.10.28경 김 남매 사건 대책위에서 안기부의 프락치공작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안기부 김성훈과장이 대구, 경북 지방에 가 있던 백홍룡(배인오)씨를 급히 상경하도록 안기부요원에게 지시했다.

김과장은 백홍룡씨를 만난 자리에서 김남매사건대책위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김은주와 박상희가 너를 의심하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으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나고 추궁하였다. 백홍룡(배인오)씨는 “박상희가 나를 미쳤다고 하는데, 그애가 미쳤습니다. 저는 절대 박상희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상희가 저의 여자친구 ○○○와의 관계를 오해하여 질투심등으로 인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김성훈과장이 백홍룡씨에게 이 일로 시끄러우니까 몇달 낚시터에 가 있으라고 말했다. 그때 백홍룡(배인오)씨는 92.6경 안기부요원들에게 조사받을 때, ‘이내창이 왜 죽은 줄 아느냐?’ 면서 협박한 사실이 생각나 겁이 났고, 박상희씨에게 백홍룡씨가 비밀을 누설했다고 의심받는 것 등이 걱정되었으며, 만약 위험한 상황에 빠질 경우를 대비하여 무엇인가 증거자료를 확보하여야겠다고 생각하여, 김성훈 과장에게, 백홍룡씨의 선배 김용환씨의 약혼식이 있을 예정인 강서면허시험장 근처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다.

나. 백홍룡씨는 1993. 10. 30.경 선배인 김용환씨 약혼식 비디오 촬영을 하던 중 밖으로 나와 안기부 김과장과 윤동한을 만나 자연스럽게 비디오 카메라를 손에 들고 몰래 그들의 얼굴과 차량 번호 등을 촬영하였다. 그리고 김과장등을 약혼식장 주차장에서 기다리게 한후 약혼식장에 들어가 계속 약혼식을 촬영하고 그 테이프를 친구에게 보관시켰다.

백홍룡씨는 안기부의 차량에 탑승하여 낚시터로 가며 비디오카메라를 몰래 작동시켜 김과장과 윤동한, 운전기사들을 촬영하였고 중간에 안기부 직원들에게 의심받지 않게 카메라렌즈 뚜껑을 닫고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

6. 94.2말부터 출국하기 전인 94.8말까지의 백홍룡씨의 행적

94년 2월부터 5월경까지는 백홍룡씨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프락치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변명하였다. 백홍룡씨는 김성훈 과장의 지시에 의해 이기옥 변호사의 사무실에 와서 자신이 프락치가 아니라고 해명한 사실도 있다.

94년 5월부터 8월경까지는 김과장의 지시에 따라 국내 운동단체의 활동가들 중에 안기부 프락치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알아보고 포섭하는 일을 했다. 그리하여 7, 8명을 대상으로 물색한 후 그 중 2명을 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보고했는데, 포섭되었는지 여부는 모른다. 인권운동단체활동가들에게 안기부 프락치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는 자리에는 항상 그 뒷자리에 안기부요원이 자리를 잡고 대화를 엿들었으며, 주로 통일문제, 북한에 대한 생각 등에 관한 주제로 토론하면서 프락치로 포섭할 만한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했다.

7. 백홍룡씨가 출국하게 된 경위

가. 94년 8월 중순경 김성훈 과장으로부터 국내일에 머리도 아플테니 여행겸 독일(베를린)에 갔다가 오라는 지시가 있었다.

나. 출국날짜는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8월 31일 출국하기 전날 안기부 근처 크리스탈 다방에서 김과장으로부터 "내일 출국할 준비를 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안기부로 안내받아 사장에게 인사를 했다.

그당시 사장이 한 말을 간단히 요약하면, "그동안 고생 많았다. 네가 노출된 것은 우리들의 잘못이 크나 그리 염려할 문제는 아니다. 지금 현재는 잠잠하지 않느냐, 너와 나의 관계는 동지적 관계다. 우리가 믿는 만큼 너 또한 우리를 믿어야 한다. 여행 중 범청학련에 잠시 들르는데 네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 보지는 못하겠지만 만일 그쪽에서 네가 배인오가 아닌가 의심을 받으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네가 가고 싶은데를 여행만 하라. 만일 그들(범청학련)에게 네가 노출되어 잡힐 경우 우리와의 관계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하면 안된다. 너를 노출시키는 날에는 그들이 아니면 다른 쪽에서 널 죽일 수도 있으니 절대 노출시키면 안된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김과장, 안기부 직원 운동한, 이선생과 충무로 복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김과장이 백홍룡에게 “앞으로 1년정도 국내에서는 공개활동을 하지마라, 지금까지 정보원들이 (프락치, 공작담당) 노출되면 1,2년 잠적하며 본사에서 공부도(교육)하고 해외활동도할수 있다. 너는 내가 보장을 하기 때문에 해외(독일)도 나가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 여행한다고 생각하고 베를린(범청학련)의 분위기와 국내에 연결된 사람이 있는가만 알아내면 된다. 그러나 부담스럽게 하지마라, 그쪽에서 널 알아볼 수도 있으니, 그런데 시간이 흘렀으니 널 알아보지 못 할 거다, 너의 얼굴도 모르니. 그러니 너만 우리와의 관계를 노출시키지 않으면 된다. 내일 출발하면 베를린 범청학련에 들어서 여행객인데 만날 수 없나라며 접근한 후 분위기를 파악하고 만일 국내와 연결된 사람이 있으면 사무실로 전화를 해라. 이 일을 먼저한 후 내가 한달간 여행을 해도 좋다. 여행 끝난후 오기 3일전에는 온다고 사무실로 전화를 해야된다. 그러면 우리가 공항으로 나가겠다. 여행이 끝나면 넌 공짜로 월급만 받으며 1년간 공부(교육)만 하면된다. 이번이 좋은 기회니 많은 걸 보고 배우고 오라. 네가 이렇게 여행을 하게된 것은 모두 내가 윗분들께 잘 말해서이다. 그러니 내 마음을 모르면 안된다. 은혜를 저버리면 인간도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꼭 매장된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비행기출발시각을 알려주었고, 현재 여권은 내가 활동한 기록이 있으니 새 여권으로 주겠다고 하여 다음날 김포공항(16:00경)에서 새 여권과 비행기표, 여행경비를(약 300만원 정도) 받아 공항직원들만 다니는 문을 통해 출국심사도 받지않고 18:30분발 케세이 퍼시픽 비행기로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하여 베를린에 도착했다.

8. 백홍룡(배인오)씨의 출국 후의 행적

가. 베를린 도착 후 ‘범청학련에 가면 다시 범청학련에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닌가? 또한 국내 정세도 좋지 않았으며, 안기부 직원들이 말하는 쾰른보쿰 얘기를 엿듣게되어 독일쪽에 무슨 사건을 기획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항상 안기부직원들의 분위기가 이러면 한달안에 무슨 사건이 생김) 바로 범청학련을 들리지 않고 유럽지방을 다니며 마음을 정리하고 10월 19일날 찾아가게 되었다.

나. 또한 출국 후 범청학련에 전화하여 방문의사를 밝혔으나 겁도나고 갈등이 생겨 미행이 있을지 모르므로 따돌리기 위하여 지하철을 바꾸어 타는 등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양심선언을 할 것인가, 그리고 장래 어떻게 살 것인가’ 등 생각을 정리하기 위하여 주로 밤열차를 타고 함부

르크, 덴마크, 로마, 노르웨이 등과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구권을 돌아다니다가 10.19. 박성희씨 집으로 찾아가 신분을 밝히려 하였다. 그러나 차마 말하지 못하고 베를린에서 안기부 직원들에게 발각되어 가지고 있던 비디오테이프의 내용이 밝혀질 경우 위험하므로 중요한 물건이라며 박성희씨에게 보관시켰다. 그 다음날 박성희씨의 집으로 저녁초대를 받았는데 그들이 이미 비디오테이프를 틀어보고 어떻게 된 일이나고 추궁하여 신분을 밝히고 양심선언을 하고싶다고 말했다.

9. 백홍룡(배인오)씨가 양심선언을 하게된 동기

안기부직원들의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 프락치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차츰 갈등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점차 언젠가는 필요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안기부직원들의 얼굴을 촬영하여 증거로 남기려는 생각을 하고 93. 7. 경 크리스탈 다방에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 몰래 얼굴을 촬영하였다. 그리고 안기부직원에게는 비디오 카메라가 고장나 수리하려고 가져왔다고 둘러댔다.

이때까지는 명확히 양심선언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김은주씨 남매를 구속한다는 말도 없이 오히려 김은주씨 체포현장 근처로 불러내 감시하며 김과장이 사건을 지휘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극도의 배신감을 느꼈으며 TV뉴스 등에서 대대적으로 남매간첩단사건으로 보도하는 것을 보고 큰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생각에 공포심과 양심의 가책으로 혼란상태에 빠졌다. 또한 인권운동사랑방등에서 뒷조사를 하고 백홍룡(배인오)씨가 프락치라는 기자회견을 갖는 등 정체가 탄토날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과장 등은 시간만 흐르면 된다고 하며 지방으로 피신시키고 직원들로 하여금 감시케하는 것을 보고 언젠가 양심선언을 하기로 결심하고 선배 약혼식을 빙자하여 몰래 비디오 촬영을 하였다.

그런데 비디오테이프라는 유력한 자료가 있음에도 겁이 나서 국내에서는 양심선언을 못하였고 외국에 나갈 기회가 있으면 그때 양심선언을 하려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던 중 갑자기 베를린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황급히 비디오테이프를 숨겨가지고 출국하였다. 출국 후 여러나라를 돌아다니며 방황하던 중 이제 안기부로 돌아갈 수는 없게 되었다는 판단을 하고 베를린에서 양심선언을 하기로 결정하고 양심수후원회원 등 교포들의 도움을 받아 녹색당의 후원으로 베를린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였다.

10. 운동단체 내부의 프락치문제

운동단체내부의 프락치 명단을 안기부에서 보거나 이름을 안기부직원들로부터 들은 적은 없다. 다만, 백홍룡씨가 프락치 활동을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거나 들은 사실에 의하여 프락치로 짐작하고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누가 프락치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안기부의 공작에 의하여 조작되었다는 관련사건은 안기부직원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알게 된 것인데 그 이상 구체적인 증거는 없으나 본인이 조작에 관여하였던 경험과 이야기를 들었던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조작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1. 맺 음 말

이번에 백홍룡(배인오)씨가 독일의 베를린에서 밝힌 양심선언은 그동안 국가안전기획부가 조작간첩을 만들어내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음을 나타내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안기부는 과거 대통령 선거직전이나 정권위기시마다 간첩사건을 발표했으며 그때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안기부의 발표를 믿고 북한의 대남공작이 계속된다고 생각하며 분노와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최근 몇년 동안만 해도 92년 대통령선거 직전 발표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과 김삼석, 김은주 남매 사건, 구국전위 사건 등에 대해 끊임없는 의문점들과 안기부의 프락치 공작 의혹이 제기되었다. 안기부는 93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안기부법 개정문제,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 등이 거론되고 안기부의 위상이 약화될 것이 예상되자 “문민정부하의 최초의 간첩사건”이라면서 김삼석, 김은주 남매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게 하였다.

김삼석, 김은주 사건 대책위원회에서 백홍룡씨의 프락치 공작 사실을 폭로하였으나 이번에 백홍룡씨가 양심선언을 하기까지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백홍룡씨는 김남매 사건 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내용을 알게된 안기부 김성훈 과장의

추궁을 받으며 신변의 위협을 느껴 이번 양심선언의 토대가 된 비디오테이프를 만들어 놓았다.

민변의 대표로 베를린에 파견된 이기욱, 이덕우 변호사는 그곳에서 백홍룡씨를 만나 4박5일동안 철저하게 양심선언의 신빙성을 집중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그의 양심선언 내용이 명백한 사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일반 국민 누구라도 안기부 과장 김성훈씨와 안기부 직원 윤동한씨의 모습과 대화내용이 녹화된 비디오테이프, 양심선언 보도자료, 백홍룡씨의 진술서 2통, 변호사들이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들을 보게되면 그 내용의 신빙성을 믿게 될 것이다. 백홍룡씨는 변호사들이 그를 만나 조사하는 도중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참회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즉각 김남매사건 조작의 진상을 솔직하게 공개하고 국민에게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는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이 사건 및 프락치 관련 의혹이 있는 사건들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악법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야 한다. 또한 안기부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정말 필요한 기관인지를 신중하게 재검토하여야 한다.

성 명 서

- 대통령의 사과와 국회의 국정조사권 발동을 촉구하며 -

우리는 오늘 협박과 강요에 못이겨 안기부프락치로 밀행해 온 백홍룡씨의 고뇌어린 이국땅에서의 양심선언을 통해서 알게된 안기부 공작수사의 전모를 발표하면서 지금 이순간에도 경악을 감출 수 없다.

백씨가 뒤늦게나마 안기부공작의 마수에서 벗어나고자 극한 상황속에서도 용기와 기지를 발휘하여 공작을 담당한 안기부 수사관들의 얼굴과 차량 및 대화내용들까지 생생하게 찍어둔 비디오테이프 등 물증과 백씨의 진술에 의해, 안기부는 백씨를 이용하여 김삼석, 김은주 남매에게 조작된 간첩혐의를 씌우기 위한 가공할 공작을 해온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국가기관의 하나인 안기부가 국민을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무고한 국민에게 사형까지 가능한 간첩죄의 명을 씌우고, 허위사실을 자백받기 위하여 가혹한 고문까지 가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공권력이 이제 타락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 남용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 것인가. 분노에 앞서 한탄과 깊은 절망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사실 5.16 쿠데타를 시발로 하여 계속된 군사정권에 의한 기본권 유린과 그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의 역사라고 할 현대사는 악법의 대명사인 국가보안법의 남용과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안기부의 인권침해로 점철되어 왔다.

안기부는 그 어느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비밀의 성에서 오직 독재자에게 충성하고 정권유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초헌법적 정보기관으로 전횡을 일삼아 왔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른바 문민정부 들어 대통령은 공공연히 개혁과 인권보장을 공약해 왔고, 이에 따라 현 안기부장은 작년 2월 취임사에서 "국민으로부터의 불신을 불식하는 한편 대통령의 철학과 뜻을 받들어... 과거 어두웠던 정보문화를 밝은 정보문화로 바꿔 새로운 정보문화를 창출하는 산파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직권남용의 소지를 제거한다는 취지하에 수사권이 일부 축소되는 등 안기부법이 개정되어 금년부터 시행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상당수의 국민들도 안기부가 환골탈태하기를 기대하는 바람이 많았으리라고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김씨남매간첩조작사건 같은 엄청난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결국 공약이니 법개정이니 하는 것들이 모두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속임수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도대체 "대통령의 철학과 뜻"을 어떻게 해석하였길래 이처럼 대통

명직속하의 국가기관이 선량한 국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고문을 가한단 말인가. 그리고 김씨 남매를 기소한 검찰과 유죄의 확정판결을 내린 법원은 안기부의 이번 공작을 재판과정에서 전혀 물렸단 말인가. “간첩용의자에게 변호인 접견과 구속적부심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수사진행과 보안 유지상 큰 문제”라고 한 안기부수사국장의 망언과 이번 사건은 무관하지 않다. 저 기억하기도 싫은 권인숙양 성고문 사건과 박종철씨 고문살해 사건의 망령이 되살아 난듯한 이번 사건 또한 안기부 수사관 몇몇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라고는 볼 수 없기에 더 두렵다.

우리는 이번 안기부 공작수사 사건에 대한 전모를 밝힌 양심선언을 계기로 그간 수없이 발표되었던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조작사건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최근에 일어났던 일련의 불행한 대형사고와 함께 이번에 드러난 안기부 공작 수사사건이야말로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대한 위기의 징후라고 보는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라.

1. 정부는 김씨 남매 조작사건의 진상을 엄중수사하여 사실 그대로 공개하고 이 사건 공작을 직접 주도한 사건관계자들로부터 안기부장에 이르기까지 관련자 모두를 파면, 해임 및 형사처벌하라.

1. 국회는 즉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한편, 그동안 안기부 수사기관에 의한 프락치 공작 의심이 있는 모든 사건들의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

1. 정부와 국회는 안기부의 조직과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1. 인권유린의 원인을 제공해 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1994. 11.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고 영 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상 근